

# 5월부터 코로나 격리 의무 5일로 단축

### 방역당국 "완전 해제는 7월 예상" 엔데믹화 마지막 단계 내년 전망 백신, 국가필수접종 전환 검토



정부가 코로나19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 전환 로드맵을 발표한 2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코로나 검사센터 앞에 한 시민이 앉아 있다. /연합뉴스

방역당국이 29일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3단계 로드맵'을 발표했다. 오는 5월께 코로나 격리의무를 5일로 단축하고, 완전해제는 7월로 예상했다. 독감과 같은 '엔데믹화'로 가는 마지막 단계는 빨라야 내년이 될 것이라 전망했다.

◇1단계(5월 WHO 결정 보며 위기단계 하향·격리 단축)=현재 남은 조치를 완화 또는 해제하는 첫 단계는 5월 초께로 예상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4월 말에서 5월 초 국제보건규칙 긴급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미국 정부는 5월 11일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 종료를 예고한 상태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시기에 위기평가회의를 소집하고 유행 상황과 대응 역량 등을 검토해 현재 '심각'인 감염병 위기단계를 '경계'로 하향할지 결정하게 된다. 위기단계가 낮아지면 현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해 기동 중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해제된다.

1단계에서 확진자 격리 기간을 7일에서 5일로 단축한다. 격리 기간이 줄어들면 현재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지급되는 생활지원비는 유지된다. 입국 후 3일차 유전자증폭(PCR) 검사 권고도 사라지며, 현재 18곳인 임시선별검사소 운영도 중단된다. 매일 집계하는 코로나19 확진자 등 통계도 주간 단위로 전환한다.

◇2단계(감염병 등급 2~4급 조정·격리·마스크 의무 해제)=2단계 조정은 1단계 조정 후 상황 평가와 현장 준비 등을 거쳐 이뤄진다. 2단계에선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현재 2급에서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은 4급으로 전환된다.

5일로 단축된 확진자 격리 의무와 의료기관, 약국,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 남아있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전히 해제돼 권고로 전환된다. 격리 의무가 없어지므로 재택치료자 관리도 종료된다. 이 단계에선 코로나19가 일반의료체계로 전환되기 때문에 지정 병상 체계도 없어지고 검사나 입원치료비, 생활지원비 지원이 축소되거나 종료된다. 수가 체계 개편 작업도 이뤄진다.

PCR 검사는 보건소가 아닌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받게 되는데, 고위험군 등에는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입원 치료비의 경우 중증환자에 한해 본인 부담금 일부 지원을 유지하며, 생활지원비나 유급휴가비(중사자수 30인 미만 기업 대상) 등은 없어진다. 다만 2단계 이후에도 먹는 치료제나 연 1회 백신 접종은 계속 무료로, 2단계 조정은 7월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과 함께 확진자 격리 의무·의료기관 등에

남아있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전히 해제되는 위기단계 조정 2단계 시점에 대해 "1단계 시행 이후 두세달 정도 살펴볼 필요가 있어 5월 초 정도에 1단계 조정을 하면 (2단계는) 7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3단계(상시적 감염병 관리 단계·백신은 국가필수접종 전환)=3단계는 코로나19가 독감처럼 '엔데믹'이 되는 단계다. 이 단계에선 코로나19 백신도 전 국민 무료 접종 대신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전환하는 것이 검토된다. 이 경우 필수접종 대상은 무료로 백신을 맞지만 나머지는 유료로 맞게 된다. 중증환자에 한해 유지되던 입원치료비 지원도 종료되며, 치료제도 무상 공급이 끝나고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가 일부 부담하게 된다. 3단계에는 내년쯤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국은 치료제 견보 적용 시점을 내년 상반기로 전망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전남도, 한우 수급안정 총력...최고 50% 할인판매

### 직거래 활성화·유통구조 개선·사육 적정관리 등 추진

전남도가 대대적인 한우고기 할인 행사에 나서는 등 한우 수급 안정을 위해 전방위 대응에 나선다. 한우 사육은 증가하고 있지만, 소비는 오히려 위축되면서 산지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직거래 활성화, 유통구조 개선 등에 나설 방침이다.

우선 지역 농·축협 판매장을 통해 전국 평균 가격의 10~50% 수준인 합리적인 가격에 할인행사를 연중 실시한다.

전남 곳곳에서 개최되는 축제와 연계해 한우협회와 지역축협 홍보부스를 설치, 할인판매에 나선다. 제10회 명품한우대축제를 당초 8월에서 5월 가정의 달로 앞당겨 4일부터 3일간 전남도청 앞 남양 중앙공원에서 개최하고, '남도장터' 기획전 및 특판

행사(10~25%)에 축산물 판매업체 79개소가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등 온라인 판매도 확대한다.

한우고기 유통구조도 개선해 가격을 낮춘다. 유통구조를 기존 6단계(농가→수집장→가축시장→도축장→가공장→판매장)에서 4단계(농가→가축시장→도축장→농축협직매장 등)로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직거래 판매장 개설을 희망하는 업체는 시설자금(30억원 이내·이자율 1%·2년 거치 8년 상환) 및 판매장 인차료, 원료구입 자금 등 운영자금(6억원 이내·이자율 1%·2년 거치 3년 상환)을 녹색축산육성기금으로 지원해 현재 193개소에서 2025년까지 25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2022년 사료 구매자금 대

출 실행이 완료된 농가를 대상으로 사료구매자금 이자(1%→0%) 24억원을 지원한다. 사료비 절감을 위해 사일리지 제조, 기계장비, 종자대 등 13개 사업에 1042억원을 지원, 조사료 재배 면적을 6만 ha까지 확대한다.

강효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한우 수급 안정을 위해 대대적 한우고기 소비 촉진은 물론 암소 자율감축에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며 "소비자가 한우고기를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하도록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직거래를 확대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 광주시,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유치 나선다

### 광주·전남 분포 문화유적 620곳...市, 유치 신청서 제출

광주시가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유치에 도전한다.

광주시는 "최근 문화재청에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신청서에는 지역 내 마한유적 현황과 특성 등이 담겼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16일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광주 유치 희망 선포식을 개최했다.

문화재청은 마한역사문화의 대국민 전사·홍보 등을 전담할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올 하반기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대상을 발표할 예정이다.

영산강유역을 중심으로 광주와 전남에 분포돼 있는 마한역사문화유적은 620곳이며, 광주에는 103곳의 마한유적이 분포돼 있다.

광주 마한 유적의 특징은 시기적으로 마한의 형성기에 해당하는 신창동 유적, 소멸기에 해당하는 월계동 장고분과 명화동 장고분이 모두 분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고대마한의 시작과 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성격적으로도 다른 지역 유적은 대부분 고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으나, 광주는 대규모 생활 취락유적으로 2000년 전 마한사람의 생활상을 연구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광주 대표 마한유적인 신창동 유적은 기원전

마한형성기에 해당하는 유적으로 세계 최대 벉겅질 퇴적층, 한국 최고(最古) 비단과 방직 도구, 현악기, 수레바퀴 등이 확인된 국내 유일의 복합 생활유적지이기도 하다.

이 밖에도 동림동유적과 하남동·평동유적 등은 마한의 취락경관을 제시하며, 농업·제철·토기·물자유통 등의 생산활동에 종사한 전문적인 집단이 광주에 있었음을 알 수 있고, 비아 유적과 행암동유적에서는 마한시대 토기가마가 확인돼 마한의 토기생산과 유통에 대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기원후 6세기 초중반인 마한소멸기에 해당하는 월계동 장고분과 명화동 장고분은 형태와 출토 유물상에서 동아시아 정세를 반영하는 유적으로 평가된다.

광주시는 이 같은 역사성과 대표성을 인정받아 2022년 '역사문화권 정비 특별법' 마한역사문화권에 추가로 포함됐으며, 같은 해 12월 신창동 마한역사유적체험관을 개관하고 마한문화유산을 알리기도 집중하고 있다.

김요성 문화체육실장은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를 유치해 마한역사를 재조명하고, 광주가 가진 세계적 문화자원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비엔날레 등과 연계해 2000여 년전 마한이 꽃피웠던 찬란한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데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시, GGM 근로자 주거비 추가 확보...산업부 공모 선정

광주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지방 주도형 투자 일자리 수요맞춤형 지원 공모에 선정돼 국비 3억원을 확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근로자, 기업, 지역주민, 지자체 등 지역경제 주체들이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통해 신규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확보한 국비는 국내 최초 상생형 지역 일자리 기업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 근로자 주거비 지원에 활용한다.

광주시는 지난해 10월부터 GGM 주거비 지원

대상을 대리 이하 근로자(연봉 4천500만원 이하 과장 포함)로 확대하고 금액도 월 20만원 수준에서 27만 2000원으로 늘렸다.

광주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주 도시공사와 협력해 공공 임대주택 135호를 확보하고, 희망 근로자에게 입주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국토부 일자리 연계형 공공 임대주택 공모에 선정돼 광주승정역 GTX 투자 선도지구 내 300호 규모 주거단지를 건설할 계획이

## 전남도농업박물관, 4월 1일 '관광형 주말 농부장터'

오는 4월 1일 전남도농업박물관 정문 광장에서 올해 첫 '관광형 주말 농부장터'가 열린다.

'관광형 주말 농부장터'는 지난 2021년부터 시작한 농업박물관의 특화된 관광형 장터로, 지역 농업인의 판로 확대와 박물관 인근 지역 주민과의 소통, 영산호관광지 활성화 등을 위해 마련됐다.

농업박물관은 4월 1일 첫 장터를 시작으로 5월 13일까지 격주로 4차례 '2023년 봄장터'를 운영

한다. 직접 생산농가에만 제공하던 판매부스를 올해부터는 사회적경제기업까지 참여토록 해 규모가 2배 가까이 커졌다.

농업박물관은 '주말농부장터'를 찾는 관광객에게 즉석 빵튀기와 바름개비 등 방문 기념품을 제공하고 3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현장에서 직접 김치를 버무려 가져가는 '무료 김치 담그기 체험행사'도 준비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임대차 보증금·상속채권·채무 전문 무료 상담.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

2023 고소득 추천 목록. 두릅, 민두릅, 참두릅. 가지 없는 민두릅, 참두릅, 정강두릅은 볼부터 가늘까지 수확. 포도, 루비로망. 직경이 거봉포도 크기의 2배 (3cm, 무게20g, 당도 18브릭스 이상). 감, 원추, 태추단감, 슈퍼대봉. 신상품, 추위에 강하고 슈퍼단감. 배 맛이 나는 단감 중에 최고! 대봉중에 맛이 뛰어나 식재물 많이 합니다. 임나무, 가지없는 임나무. 가지 없는 임나무 가지 있는 것보다 수확이 2배가 나고, 효능이 같습니다. 호두, 신상품 호두. 주기결실, 열매가 크고 속이 짙으면서 가피가 얇아 손으로 잘 부서집니다. 사과, 신상품 호두, 신상품 유실수 등 품종이 다양합니다. 나무는 "갹을농원"과 상담하세요! 모목 식재 및 재배 관리까지 무료교육, 무료상담해 드립니다. 휴경지 노는땅 상담해드립니다. 갹을농원 모목상담 : 010-3121-7676 문의전화 : 053-856-1144

제8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2023년 03월 30일. 주주님의 권익과 권익을 기원합니다. 우리회사가 상법 제365조의 당장 제23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제8기(8월) 정기주주총회'를 개최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소집 일시: 2023년 04월 17일 (월요일) 오후 02시 00분 2. 소집 장소: 파티룸(우주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173, 3층 (가산동, 엘리아빌딩)) 3. 회의 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1) 감사보고 2) 영업보고 나. 부의안건 제1호 의안: 제8기(2022년1월1일~2022년12월31일)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골드플러스 상장 상장위원회(공공위원 이선진) 제3호 의안: 자산운용사 지분 매각 후인 건 4. 기타사항 회사의 추진 사항 및 비전 발표 (발표자: 박남일 대표이사) 5. 실업주주의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금번 우리회사의 주주총회에서는 지분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 제5항 단서규정에 의거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들의 의견권을 대리행사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견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시거나, 직접한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의견권을 간접적으로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6.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가. 직권행사: 주주 참석증(또는 소집통지서, 신분증 나. 대리행사: 주주 참석증,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인사)명 기재, 주주인감, 주주인감증명서(1회), 대리인 신분증 다. 문의전화: 043-238-7771 2023년 03월 30일 주식회사 골드론 대표이사 박남일 직권행위

상속한정승인공고. 파상속인: 망 정기남(400703-XXXXXX) 최후주소: 광주 남구 화산로31번길 10, 101동 1104호(진월동, 서리아파트) 파상속인 망 정기남의 상속인은 위 파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2023년 단3272호로 신청하여 2023년 3월 27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파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지 않음에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3년 3월 30일 상속인: 양방수(710325-XXXXXX) 광주 남구 화산로31번길 10, 101동 1104호(진월동, 서리아파트) 신고기간: 2023. 3. 30. ~ 2023. 6. 9. 채권신고처: 상속인 양방수의 주소

先州日報. 지역안내. 북구: 광 266-1920, 문 266-1960, 북광주 525-3761, 신 안 222-8171, 양 산 571-7658, 오 지 266-7601, 용 봉 433-1503, 우 신 433-1503. 중구: 남 광 673-6836, 동 명 222-9054, 동 부 225-6001, 중 양 222-9054, 중 장 222-8171. 남구: 남 부 673-6836, 백 은 651-1833, 동 신 673-6836, 송 하 675-6605, 신 철 671-7276. 서구: 광 천 382-5788, 상 무 372-2352, 서광주 369-1625, 윤 천 376-7153, 치 평 376-6511, 풍 암 603-0311, 화 청 369-1625. 광산구: 은 남 952-1687, 철 곡 959-1920, 철 단 973-2900, 하 남 955-0451, 광 신 944-0444